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지역사회 "환영"

유족·지자체·의회...한 목소리 "73년 통한의 눈물 닦아주시길" 이달내 본회의까지 처리 기대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유족과 지자체들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상정된 '여순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순사건 유족과 지자체들도 여순사건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순항쟁 유족연합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유족연합회는 이어 "여순사건특별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며 "조속히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어 한 명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특별법제정 소식을 듣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애절한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함께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규중 유족연합회 회장은 "우리 유족들의 73년 동안의 삶을 함께 위안하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앞장 서주신 소병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법안 상정과 통과에 합의를 뜻과 마음을 다해준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순천시 여순10·19민관협의회도 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이번 행안위 통과까지 많은 분이

함께 애써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야당 의원을 만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다"면서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이달 안에 모두 통과되어 73년을 기다려온 유족들의 한과 눈물을 닦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여수시민의 염원인 특별법 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지역의 아픈 역사이자 우리 이웃의 슬픔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시의회는 또 "특별법안의 행안위 통과에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특별법안이 본회의까지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수시의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주요 현안으로 삼고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월에는 특별법 제정 염원이 담긴 동백꽃시계를 300여 국회의원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민덕희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장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정치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날까지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해원과 상생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환영했다. 권오봉 여수시장도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과 군·경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추념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동백'을 통해 여순사건의 아픔을 국내외에 알리는 등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군 가정 아트빌리지 휴양형 마이스센터로 육성



곡성군은 가정 아트빌리지(사진)를 소규모 기업 회의와 관광이 가능한 휴양형 마이스(MICE) 센터로 육성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가정 아트빌리지는 전시, 체험, 숙박,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갤러리, 야외 공연장, 공예 체험관, 펜션을 비롯해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 등도 있다. 갤러리는 서울의 유명 갤러리 '학교재'와 협약을 맺고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아울러 마리온네트 줄 인형극 공연, 우리 공예와 도자기 공예 등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 아트빌리지 인근에서는 섬진강을 따라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짚라인, 출렁다리, 천문대 등을 관람할 수 있다. 곡성군은 가정 아트빌리지가 2021년 전라남도 휴양형 마이스 육성사업 신규 시설로 선정됨에 따라 회의나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이나 단체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순천만 건간망어업 2개월간 설치 금지

11개 어촌계 자발 금지 기간 운영 마을어장 123ha 어장정화사업도

순천시는 순천만에 설치된 정치성구획(건간망)어업 설치 금지기간을 2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천에서는 매년 11개 어촌계장들이 상호협의해 자발적으로 2개월 이상 건간망어업 설치 금지기간을 설정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건간망어업이란 말뚝을 박은 그물을 길다랗게 설치해 조수 간만의 차로 어획하는 어업을 말한다.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금어기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규에 강제력은 없으나 산란기 치어를 보호하고 설치된 건간망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순천시와 어업인들의 상호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어촌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수렴과 함께 건간망 설치 금지기간 설정 및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오는 20일까지 개인과 어촌계별로 순천만일원 건간망어업 시설물을 동시에 철거하게 된다. 또 철거 시 그물 등을 갯벌에 묻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어촌계를 방문해 안내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건간망 금지기간을 이용해 별량면 무풍어촌계 마을어장 123ha에 대해 1억원의 사업비로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만에는 197건 396ha의 건간망어업이 허가돼 있다. 칠게, 낙지, 돔, 숭어, 쟁둥어, 뽕장어 등 연간 600여t의 어획고를 보이며, 약 20억원의 어업소득을 올리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은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어업 자산"이라며 "어업인 모두가 건간망을 이용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순천만 지역 어촌계장들이 자발적으로 2개월 이상 건간망어업 설치 금지기간을 설정·운영해 오고 있다. 순천만에 설치된 정치성구획(건간망). <순천시 제공>

고흥 도양~여수 거문도 쾌속 여객선 취항

'퍼스트퀸호' 1일 1회 왕복 운항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항을 연결하는 해상 항로는 170t급 쾌속선 '퍼스트퀸호'가 19일 신규 운항을 시작한다. 고흥군에 따르면 (주)삼도해운 소속 '퍼스트퀸호'는 여객정원 200명이며, 항해속력 25노트의 쾌속 여객선으로 녹동과 거문도를 1일 1회 왕복 운항할 계획이다. 종전 녹동-거문도 항로는 79t 차도선형 여객선 '평화페리11호'와 166t 차도선형 여객선인 '쓰리아일랜드호'가 운항 중이었다.

이번에 신규 투입된 '퍼스트퀸호'는 녹동에서 초도를 거쳐 거문도에 도착하는데 1시간 20분 이내로 가능해 관광객 및 도서 주민의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기존 녹동-거문도 항로를 운항 중인 차도선형 여객선 2척을 포함해, 추가로 신규 쾌속 여객선 '퍼스트퀸호'가 운항을 개시함에 따라 녹동신항이 명실상부한 거문도 여행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며 "고흥은 해양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구례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급증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구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대폭 확대 발행한 구례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사랑상품권은 5월 말 기준으로 올해 목표 판매액의 50%인 102억원이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환전실적은 9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3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군은 구례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작년 100억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정책수당도 상품권으로 지급돼 판매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된 것으로 기대했다. 카드형 상품권도 순항중이다. 지난달 출시해 현재까지 900명이 발급했고 6억원을 구매했다. 카드상품권의 경우 사용의 편리성 및 휴대성이 높고 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더욱 비중을 늘려 발행하고, 10% 특별할인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 (22년 1월 예정) **행사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자금자동이체, 신탁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탁제휴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 (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 예치보통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축은 신탁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탁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5)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지신로 91번길2-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